

# 길 가다 작품보고, 사진찍고... 동네 곳곳 전시장된 장충동

## Q 르포 | 2024 파라다이스 아트랩 페스티벌, 장충

“지나다니면서 부담없이 전시도 보고 사진도 찍을 수 있어서 좋아요. 앞으로도 이런 지역 축제가 많아졌음 좋겠어요.” 예술과 지역이 만나 상생을 이뤘다. ‘장충’이라는 주제로 한 예술 작품들이 장충 태극당, 커피빈 등 친숙한 지역 장소 곳곳에 전시돼 있었다. 전시 장소 한쪽에는 지역 상공인들이 장충동 촉발을 활용해 만든 반미 음식 점이 팝업 형태로 마련됐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전시에 들러 사진을 찍기도 마련된 장소에 앉아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 장충 일대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김 모 씨는 이번 파라다이스 아트페어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5일 파라다이스문화재단은 서울 장충동에서 ‘2024 파라다이스 아트랩 페스티벌, 장충’을 열고 지역 협력형 예술 전시를 소개했다. 행사는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이 지난 3월 사전 공모를 통해 선발한 국내 아티스트의 창작물 전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 외에도 신진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 거리공연, 아티스트 토크쇼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행사는 13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지역형 행사는 장충 태극당과 커피빈 등이 있는 P1부터 P4까지의 장소와 함께 남소영 잔디광장, 장충단 공원, 파라다이스 빌딩 1층 등 외부 장소를 포함한다.

지역 축제답게 전시된 작품들은 ‘장충’이라는 지역적 특색과 맞닿아 있었다. 먼저 커피빈 공간 옆 장소 전시회에

는 장충을 느끼고 이를 시각화해 즐길 수 있는 작품들이 마련돼 있었다. 가장 먼저 손여울 작가의 ‘날씨와 함께하는 생활(Weather Woven Living)’ 작품이다. 작가는 직접 날씨 데이터 관측 기계를 설치해 장충의 날씨와 환경 데이터를 수집했고,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하나의 데이터 아트를 선보였다.

장충의 소음을 표현한 작품도 있다. ‘배타적 이집들, 바람의 속삭임’은 전형산 작가가 청각을 시각화한 작품으로, 주변 환경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느껴지는 인식 및 감각을 주파수를 통해 시각화해 표현했다.

오감이 아닌 지역 문화를 느끼고 표현한 작품도 눈에 띄었다. 역사가 깊은 장충 태극당 2층에는 1970년대를 보냈던 한 문학소녀의 비밀편지가 전시됐



증강현실(AR) 기반 문화 예술 작품 ‘슬릿’.

### 파라다이스문화재단 국내 아티스트들 창작물 등 중심 지역과 협력하는 예술전시 진행 커피빈 옆에 장충 시각화 표현 손여울·전형산 작가 작품 선보

다. ‘1974 장충동: 문학소녀의 비밀편지’는 오주영 작가의 조모가 살아 생전 쓰셨던 문학 글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급격한 시대적, 경제적 변화와 신여성의 등장으로 문화중심지로 급부상한 당시 장충의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외에도 일제강점기 장충 일대에 술가들의 고뇌를 영상으로 표현한 ‘스



태극당 2층에 전시된 ‘1974 장충동: 문학소녀의 비밀편지’ 관련 포스터들. /안재선 기자

위트홈.에프엠(SWEETHOME.FM)’ 작품도 전시됐다.

지역은 그 자체로 기술과 만나 하나의 예술이 되기도 했다. 기어이 스튜디오가 전시한 작품 ‘슬릿’은 증강현실(AR)을 바탕으로 한다. ‘슬릿’은 기어이 스튜디오가 창작한 종족이다. 우연히 인간 세상에 와 고양이에게 쫓기다 인간의 도움을 받은 것을 계기로 인간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다.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 투어형 성격을 가졌다는 것이다. QR코드를 찍고 지도를 가지고 외부 장충공원으로 나가면 내 위치와 함께 지정된 장소가 표시된다. 주변 장소를 돌아다니며 증강현실을 통해 다양한 캐릭터를 만나볼 수 있다.

기어이 스튜디오 관계자는 “대표님께서 처음 작품을 제작할 때, 장충동 공원 일대에서 사람들이 스마트폰만 보고 좋은 공간을 놓치는 걸 아쉬워하셨다”며 “여기는 좋은 유적지, 폭포수 등 좋은 장소들이 많다. 이 ‘슬릿’을 통해 주변 지역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파라다이스 관계자는 지역과 협력한 이번 행사를 통한 소회를 전했다. “장충 일대로 아트 문화가 스며들었다면 좋겠다”며 “이렇게 지역 페스티벌을 하고 있으면 주변 상인들이 와서 파배기를 주고 가시기도 한다. 앞으로도 지역 내에서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 “기억력 감퇴 ‘메모레인’으로 예방하세요”

동국제약, 기억력 관리 캠페인 집중력·주의력 저하 효과적 개선



동국제약이 고령층 기억력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건강 솔루션 ‘메모레인(사진)’을 제공한다.

실제로, 다양한 조사에 따르면 기억력 감퇴가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했다. 2025년에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동국제약이 지난해 시장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한 25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노화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억력 및 인

지력 감퇴’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에서도 기억력 감퇴 경험률은 전체 응답자의 약 14%로 나타났다. 이어, 40~60대 24%, 50~60대 33%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경험률도 올라갔다.

이에 동국제약은 ‘메모레인’으로 기억력 감퇴 현상을 완화하라고 조언한다. 동국제약은 지난 1월 기억력·집중력 개선제 ‘메모레인캡슐’을 출시하고,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해 기억력 관리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메모레인캡슐은 인삼 40%에탄올건조엑스 100mg과 은행엽건조엑스 60mg의 생약복합성분으로 집중력 및 주의력 저하, 기억력 감퇴, 말초동맥 순환장애에 의한 현기증을 효과적으로 개선시켜 준다.

메모레인캡슐은 처방전 없이 가까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1캡슐씩 1일 2회 복용하면 된다. 휴대와 보관이 용이한 PTP포장이며, 무색수 캡슐을 적용하여 민감한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복용 가능하다.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과 구입 가능 약국 확인은 동국제약 소비자 상담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 롯데호텔앤리조트, AI 활용 아이디어 공모

‘롯데호텔앤리조트 AI 챌린지’ 개최

롯데호텔앤리조트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아이디어 공모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호텔앤리조트는 고객 참여형 ‘2024 글로벌 롯데호텔앤리조트 AI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롯데호텔앤리조트에 따르면 올해 처음 진행되는 AI 챌린지는 ‘세계 속 롯데호텔, 당신의 상상으로 빛내는 새로운 랜드마크’를 주제로 한다.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작품 수 제한 없이 응모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우선 롯데호텔앤리조트

의 시그니얼, 롯데호텔, L7, 롯데시티호텔, 롯데리조트 중 하나를 선택, 해당 브랜드가 진출하지 않은 세계 주요 도시에 호텔이나 리조트가 들어선다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한 뒤 AI 도구를 활용해 영상 또는 이미지를 제작하면 된다.

접수 방법은 롯데호텔앤리조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모 양식 서류를 다운 받아 작성 후 창작물과 함께 메일로 보내면 된다. 접수 기간은 이달 5일부터 내달 6일까지며, 내달 31일 최종 선정작을 발표한다. 선정작은 롯데호텔앤리조트 공식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안재선 기자

## 대웅제약, 당뇨병 치료제 매출 100억 돌파

국산 36호 신약 ‘엔블로’ 국산화 주도

대웅제약 엔블로군은 출시 후 월평균 두자리 성장하며 ‘당뇨병 치료제 국산화’를 주도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국산 36호 신약 ‘엔블로’(성분명 이나보글리플로진)와 엔블로메티 뉴제 원외처방액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

엔블로군은 발매 후 월평균 14%의 성장률을 보이며 빠르게 처방 실적을 확대해 왔다. 출시 첫 달 처방량 27만정을 돌파하며 두각을 나타낸 엔블로군은 올해 7월 누적 원외처방액 102억원을 달성한 것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이러한 엔블로의 확대 속도는 기존 경쟁 SGLT-2 억제제 제네릭이 쏟아지고 있는 시장 환경을 고려했을 때 매우 인상적인 성과다.

지난해 4월 ‘포시가(성분명 다과글리플로진)’의 특허 만료로 190여개의 제네릭 품목이 시장에 진출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익성이 악화되자 SGLT-2 억제제 계열의 외국계 당뇨병 치료제가 연이어 국내 시장 철수를 선언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엔블로는 임상 연구를 통해 포시가 대비 우월한 효과와 안전성 입증하는 등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 롯데온 ‘온앤더럭셔리’ 매출 2배 ↑

롯데온의 ‘온앤더럭셔리’가 9월 행사 첫날부터 역대급 실적을 올렸다.

‘온앤더럭셔리’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오픈 2주년을 기념해 ‘럭셔리 페스타’ 행사를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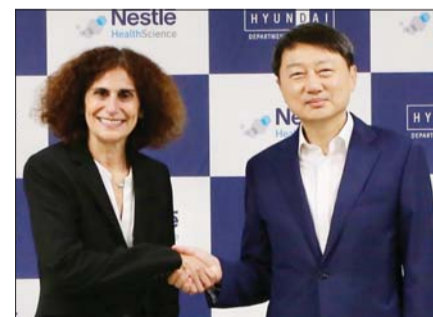
지난 1일 행사 첫날부터 일 최고 실적을 경신한 온앤더럭셔리는 3일까지 사흘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 가까이 신장하며 기존 기록을 갈아치웠다.

역대급 실적을 이끌어낸 데는 메종마르지엘라 버킷백과 폼데가르송 맨투맨, 쉐린느 아바 솔더백 등 인기 아이템 완판이 주효했다.

헬스케어 사업 확장 속력

현대백화점그룹은 서울 대치동 그룹 본사 사옥에서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 장호진 사장이 방한한 애나 몰네슬레헬스사이언스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상호 시너지를 바탕으로 한 헬스케어 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두 CEO는 지난해 양사 간 업무 협약 체결 이후의 협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네슬레헬스사이언스 건기식 브랜드의 국내 유통 확대 등 사업 확대와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전문매장 확대와 신제품 공동 개발 및 생산 등 식품·유통 분야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서울 대치동 현대백화점그룹 본사 사옥에서 장호진 현대지에프홀딩스 사장(오른쪽)과 애나 몰네슬레헬스사이언스 최고경영자가 회동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그룹은 이번 네슬레헬스사이언스와의 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그룹의 신수종 사업 중 하나인 헬스케어 사업 확장에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판매·유통채널 확대에 속도를 낸다. /최빛나 기자 vitna@